

超高層建物에 대한 雜想

崔 昌 奎 / 신진건축

인간은 가끔 목적이나 의미가 없는 데에도 말을 하고 싶어 한다. 또 그 말이 옳건 그르건에 대해서는 관계없이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구약 창세기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옳은 말, 바른 말을 남기기 위해 기록할 수 있는 文字가 필요했다. 때문에 인간은 문자를 발명해 냈을 것이다.

문자가 생겨나고, 말 뿐만 아니라 생각이나 사상같은 것을 말의 형식이 아닌 문장이라는 형식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부터 인간에게는 문명이니 문화라는 개념이 생겨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다. 이른바 言論의 自由라고 하던가?

요즈음 건축계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사회문제나 위법·탈법이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갑자기 서울의 좁은 하늘에 치솟고 있는 超高層建物(주로 사무소 건물)들의 이야기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입장이나 생각하는 나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건축사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저항같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듯이 보여진다.

우선, 현재 세워지고 있는 초고층 건물들의 설계는 어디서 누가 했는가? 또 허가는 누구의 명의(建築士)로 냈는가? 그 계획설계나 기본설계는 누가 했으며 보수는? 나아가 실시설계는 누가 했으며 또 그 보수는? 등등의 실질적인 업무면에서부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건축사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건축주나 허가관청은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등등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줄 안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난 것이

라 생각하기 때문에 필자는 별로 저항이나 불만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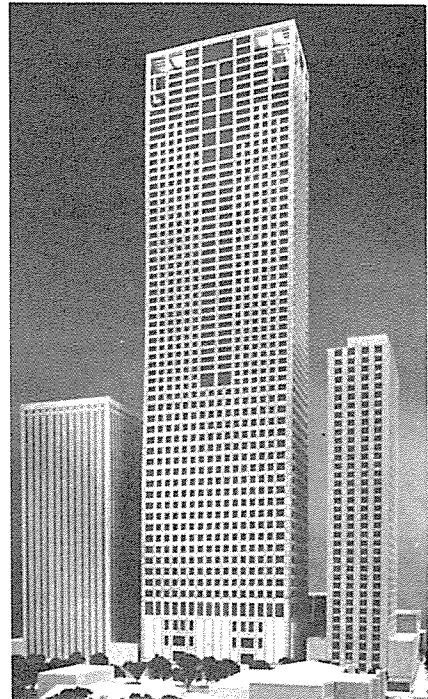
우리는 現代建築史에서 현대건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금세기초에 현대건축의 한 학파라 할 수 있는,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摩天樓派>를 알고 있다. 자본과 자유의 배경을 가지고 第一主義를 지향하던 당시의 미국 건축계에서는 초고층건물을 마구 설계했고 현대건축, 즉 초고층 건축이라는 의식을 가지게 했다. 今日 현대건축의 <매카>로 까지 불리우는 미국의 당시 사회상황과 오늘 서울의 사회상황이 어찌면 흡사한지도 모를 일이나 당시 미국에서는 많은 외국인 건축가들이 가세했던 것도 잘 알고 있는 터이다.

이렇듯 현대건축의 꽃을 피우고 있는 미국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나면, 오늘의 우리 상황에 대해 반대나 저항을 느낄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러한 느낌을 가지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즉 그것은, 건축사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우리 건축사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가질 수 있는 피해의식 같은 것, 건축주(대개가 재벌급)들의 우리 건축사에 대한 불신에서 야기되는 불쾌감, 또는 인간적인 질투감 등등일 것이라 생각된다.

먼저 건축사법에 대한 위법이나 탈법이나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는 수년전 광화문에 건립된 정부종합청사 설계시의 일을 회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시 건축사협회가 주동이 되어 학회·家協會·土木学会까지 합세하여 신문회관 강당에서 對政府 성토대회를 가졌던 기억이 난다.

이 사건은 당시에는 제법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었으며, 결국은 設計者 <PNE>社의 서울 지부장에게 건설부가 무시협으로 건축사 면허를



주어서 까지 위법을 정당화시킨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첫째, 그러한 사례로 볼 때 근래 몇년간 많은 고층건물(대규모)들이 외국에서 외국인에 의해 기본·계획설계가 되어 와 우리 건축사 명의로 본 설계(약간의) 및 건축허가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법적으로는 우리 건축사가 한 것으로 정당화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建築雜誌 등에도 버젓이 우리 건축사의 작품으로 발표되고 있는 마당에 위법이니, 탈법이니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이때 그 건축사들의 양식이나 인격같은 것은 고사하고). 법 이론은 잘 모르지만 <法の 兪점을 이용해서 범법하는 자는 그 죄 더욱 중하다>라는 말이 있다고 들어왔다.

그러나 법이란 집행측의 편리나 자유에 의해 유권해석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 요즈음, 위법 운운의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건축주들의 우리 건축사에 대한 불신문제는 당연한 일이라고 보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들은 기업인이라는 이름의 상인들이므로 그들의 모든 사업은 이윤추구로 요약되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商術이나 사업 전략은 아주 간단하다. 표면에 내세우는 미사여구는 이윤추구와 자산증식의 방법과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량 마취제인 까닭이다. 또한 건축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동기가 필요, 즉 사용목적일텐데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 내지 사용목적이란 궁극적으로 영리와 증산이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영리방법은 최소의 투자에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垆地價가 高價이니 초고층이 요구될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건축사들이 史上 그러한 건축을 설계한 경험이 없어 그런 묘수를 쓸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이에 더해서 우리 사회풍조가 동질 저렴한 국산 일용품보다는 고가인 외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고, 심지어는 개 이름은 고사하고 자기 이름마저도 외국명을 쓰는 판국이니 어찌 그만한 거액을 투자하는 초고층건물의 설계를 内國 건축사에게 맡기겠는가 말이다.

셋째로 건축사들의 피해의식과 건축사 간의 질시같은 감정인데, 이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자유경쟁 사회에서는 한낱 신세타령 밖에 되지 않는다. 건축사들의 收入源이란 설계를 했을 때 보수요율 규정에 의한 수입일 것인데, 과연 요율 규정대로 보수를 받고 설계하는 건축사가 전체 건축사 중 몇명이나 될까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평당 몇천원이라는 말이 상식화 되고 있는 마당에 총공사비의 몇 %라는 규정대로 과연 보수를 받을 수가 있을까? 또 그렇게 받아야만 설계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인지. 장관이 고시한 규정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허가절차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피해의식같은 것에 사로잡힌다면 가소로운 이야기가 될 뿐이다. 그리고 만일 외국에서 설계를 못한다고 해서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이러한 논리라면 국내의 자질구레한 설계에도 참여 못하고 다른 건축사가 한다면 그때도 피해의식을 느낄 것인가. 오히려 이 때의 느낌은 피해의식이 아닌 羨望이라 해야 옳을 것이다.

우연히도 문제의 초고층 건물들의 경우, 명의를 대여해서 자기가 설계했다 하는 건축사들을 보면 하나같이 국내에서는 가장 저명하고 권위 있고 작품활동이 활발한 건축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는 건축주나 행정공무원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권위주의적인 사회상황 속에서야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원래 건축이란 그 사회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회상황이 그러 하기에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요즈음 建築界의 한 모퉁이에서 가느다란 목소리로 오가는 회의나 불만의 말들은 아무런 의미나 목적이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은 것은 어찌 할 도리가 없다. 어느 초고층건물이 뉴욕의 汎아메리칸 건물과 외양이 유사하다든가 某 건물이 동경에 있는 미국 대사관과 흡사하다는 등의 사실은 우리 사회에선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의 現代建築, 문화발전이나 서울시의 미관에 공헌이 있다 하여 마땅히 정부나 건축계는 그들에게 공로상을 주어야 옳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他分野인 첨단사업은 세계에서 몇 번째라느니, 무엇이든 동양 제1이고 무엇이든 세계 운운하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 이때, 유독 建築界만이 침체할 수도 없는 마당에서 동양 제1(차마 세계 제1이라고는 못하고)이라는 건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세워졌든 우리 서울에 들어선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는가? 그리고 그들은 그런 건물들에 많은 逸話を 보태서 선전하여 名物로 만들어 놓으면 지방학생들의 수학여행 때 구경거리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사무실 임대료도 치솟아 一石二鳥가 아닌 五鳥나 六鳥의 성과를 얻을 것이 분명하니 누가 그런 사업을 마다 하겠는가. 더우기 이런 일들은 建設이니 發展이니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저개발국가에 들어 있었다. 그리고 곧이어 개발도상국가가 되었으며 그 후로 中進國이라고 했다. 요즈음은 머지않아 先進國

이 된다고 한다. 진행과정이 이렇듯 쾌속이라면 머지않아 세계 제1의 都市, 세계 제1의 아름다운 서울, 세계 제1의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믿어도 좋을까?

우리는 가끔 오래된 建物들을 国宝나 문화재나 보물이니 해서 보존하고, 훼손되면 복원해서까지 보존한다. 이때 그 건물들의 建立 당시의 사용목적이나 필요라는 조건은 모두 소멸되고 있었다. 그래도 우리는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여 애지중지 보존한다.

그런데 현대 초고층 건물들이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 사용가치나 필요성(이윤추구의 효율이, 즉 이 건물들의 가치요 필요였다.)이 소멸되었을 때 과연 보존될 가치가 인정되어 문화재나 기념물로 해서 보존될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런 건물들은 시간이 흘러 사회상황이 변화되면 이윤추구 효율이 저하되어 제거되고 더욱 營利性 있는 건물을 건립한다는, 현대건축이 지니고 있는 숙명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목재보다 더 강한 콘크리트나 철근으로 된 현대의 건물들은 백년 내외에서 거의가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 버리므로 수명이 약한 목재건물보다 존재기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 그 建物이 서울에서 서서 名物이 되고 서울 거리를 아름답게 했다 해도 그것은 아주 단기적일 뿐이며 어떤 기계류나 상품보다도 더 短命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建築의 歷史에서 살펴보면, 建築이란 時間性을 지닌 인류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초고층건물들은 시간성이 짧은 상품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며, 외국인의 설계를 받아다가 절차를 밟아 우리 땅에 세운 건물을 自己作品이라 서슴치 않고 말하는 著名 건축사들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商人이나 代理人들에게 상도덕과

양심 따위를 따지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마도 세상에는 없을 것이다. 모순과 불확실·불신의 시대에 살면서 주체의식이나 준법·양식 따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한 구석에서 작은 소리로 말을 하고 있으며 또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서울의 주간은 군중·소음·활동이 우리를 建築에서 소외시킨다. 생활전장에서 너무나도 동물적인 풍경만이 보일 뿐이다. 그러나 밤이 되면(특히 달밤이면) 건축물의 추상적인 本質이 드러난다. 주간의 전쟁은 휴전이 되고 침묵의 고요가 스며들면 인간을 떠난 建築物들의 세계가 된다. 이때만은 권리자나 저명건축사·무명건축사 모두가 동물로 돌아간다. 따라서 建築만의 獨尊의 세계가 다음날 아침까지 계속된다.

한밤중에 침묵하는 건축들은 응시하고 沈思해 보라. 建築들의 生成의 시초부터 과정·수단·현존건축의 시간성 등등을 默考해 보라. 그러면 말하고 싶었던 생각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는 스스로 자기위안을 찾기 위함일까?

수년전 필자가 建築家誌에 <레쉴스는 울었다>라는 글을 쓴 바가 있었다. 내용은 수에즈運河 건설당시 영국의 国会上下院合同會議場에서 벌어졌던 극적인 사항을 쓴 것이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수에즈運河 건설에 국가재정상 투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야당 당수의 짧은 연설로 투자결정이 의결된 이야기였다. 그 야당 당수의 연설은 오늘 우리의 서울에 뿌적 늘어나고 있는 초고층건물들의 외국설계라는 문제에 대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의 내용과 너무나 흡사하다고 생각되기에 여기에 인용해 보고자 한다.

연설 내용을 요약하면,

<국민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가야

한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全力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들 여당의 주장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세계 열강의 선박들이 수에즈運河를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 영국의 선박과 함정은 저 멀고 먼 남아프리카의 희망봉을 우회하여 오대양에서 열들과 경쟁해야 한다. 영국이 삼등국으로 격하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감수한다면 말이다.> 대략 그러한 내용이였다.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말하고 싶은 것이다. < 좋다. 대규모 고층건물은 모두 외국에서 설계해 와라. 그러면 서울은 세계에서 제일로 고층건물이 많은 도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건축사들은 영원히 판자집이나 설계하고 모든 건축은 외국인들이 설계해야 한다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말이다.>

정침도 지나고 봄은 정녕 어김없이 왔다. 그러나 약동하는 봄기운을 가슴 깊숙히 받아 들이기에 뭔가 안타깝고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서 옛말에 <春來不似春>이라 했던가.

요즈음 중동지역은 물론이고 세계 도처에는 <저기 韓國人이 온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즉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말이라 한다. 한국인이 그들에게 왜 무섭게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무엇이든 해대는 사람들이라 해서 한국인을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우리 建設業체가 중동이나 사우디 쪽으로 진출한 다음 생겨난 말이다. 그말을 믿어도 좋을까? 과연 그들은 한국인을 진실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까? 자기 나라에 세워지는 고층건물의 설계 하나 할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말이다.

어느날 갑자기, 오늘 유행하고 있는 이 말이 <저기 無能한 韓國人이 오고 있다.>라고 변하지 않기만을 간절히 빌 뿐이다. <*>